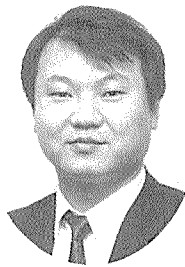


# 언론에 비친 석유산업의 현주소



김종영

〈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

## 전환기 맞은 석유산업

국내 정유업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

외환부족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시작된 국가경제 위기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이어져 모든 경제 주체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유업계는 태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환율 폭등으로 정유사들마다 막대한 환차손을 입었다.

자금부족으로 신용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유 확보 자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정유회사는 이미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올해에도 막대한 환차손과 자금난의 가중 상태가 지

속될 것이 분명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류제품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정유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석유소비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의 경제불황에 따른 수요침체로 석유류의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올해부터 석유류 가격이 자유화되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물량 해소 차원의 덤핑 판매 등 출혈 경쟁과 손익 악화가 우려된다.

원하던 원치않든 벌써 기름값 무한경쟁은 시작됐다.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실시로 석유유통체계의 대개편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IMF 체제하에서 경쟁력이 없는 한계 정유사

가 출현하지 말란 법도 없다.

투자자금 조달이 원활치 못한 현실에서 정유사들의 신규투자 중단·연기도 잇따르고 있다.

정유사 역시 자본시장 개방으로 M&A의 대상에서 예외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했던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시기를 올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매각을 검토·추진하던 일부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메이저들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부 정유사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석유산업의 완전개방에 따라 해외 메이저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메이저들의 진출이 현실화되면 현재의 5사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문가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메이저들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경우 한국 시장은 이들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칫 국내 석유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유업계가 이러한 도전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과거의 관행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모든 경영활동을 재점검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각오이다.

## 발등의 불, 재무구조 개선

새정부 들어선 이후 재무구조 개선 문제는 대기업들에게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는 저성장과 통화긴축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난이 예상되고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차입에 의존한 신규투자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정유사들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해외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무구조를 개선해 해외자금조달에 필요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정유업계 평균 400%대에 이르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내부자산 운용의 합리화, 운영비용의 절감을 통해 손익구조를 개선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유사들도 올해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난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SK는 올해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내실경영추구」를 선정했다.

한계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저수익성·장기 회임성 투자를 억제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LG정유도 경영성과를 철저히 현금흐름과 수익위주로 측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화에너지도 신규투자를 전면유보하고 부동산 처분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수익성위주로 내실경영을 펼쳐온 쌍용정유도 「한발 앞선 자금확보와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경영전략으로 삼았다.

현대정유는 고비용·저효율의 조직구조를 개편, 일선 영업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체의 노력이 단순한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제로 기업 생존을 위한 「뼈를 깎는 지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줄일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인다.

정유업계의 총 제조비용중 원재료비가 87%에 달할 정도로 원유 관련비용은 경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원유도입비용의 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 조직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경비 줄이기가 불가피하다.

LG정유는 올해 생산에서 물류 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을 對고객업무 수행역량에 최대한 발휘토록 개편키로 했다.

현대정유는 불필요한 전력낭비, 1회용 물품 과다사용 등 사원들이 무심코 낭비할 수 있는 것들의 실태를 원가단위로 파악, 절약 생활을 유도하는 「원단위 절감 캠페인」을 시행중이다.

한화에너지는 판매회사인 한화에너지프라자와의 통합운영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다.

비용절감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정유사간 업무제휴등을 통해 자산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수송, 저유 등 물류 분야에서의 제휴를 통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유사간 전략 제휴를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거중조정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한화에너지는 현재 해외메이저와의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는 합작이 안될 경우 아예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국내석유업계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석유업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의 메이저급의 신규진입이 가능해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특히 수요침체를 맞은 국내 정유업계로서는 국제석유회사와의 합작이나 선도기업-후발기업, 후발기업간 제휴,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 모색이 생존방식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일부 정유사는 유조선 공동운항 및 육상운송체계의 통합 등을 추진중이다.

이제 정유업계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내실화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부진 한계사업분야의 과감한 퇴출 등 내부 구조조정도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정부와 민간업계 공동의 대외개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대외개방이 국내 정유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요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수요침체에 따른 공급과잉의 1차적 해소책으로 수출선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지역 일변도 수출에서 탈피하고 국내 석유제품간·계절간 수급불균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석유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자